광주시장·전남지사 등록후보 신상·재산 내역

# 강운태 재산 18억원·납세 1억8000만원 1위

## 장원섭 후보 4500만원으로 재산 가장 적어

## 전남지사 후보중 박준영 후보만 만기제대

**광주시장** 13일 광주시장 후보로 등록한 5명 중 재산은 민주당 강운태 후보가 18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민주노동당 장원섭 후보가 4500여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강 후보는 8억1600만원짜리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와 1억7000만원과 1억3000만원짜리 상가 2채 등을 신고했고, 본인과 배우자, 두 아들 명의의 예금 7억9000여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한나라당 정용화 후보는 경기도 안양시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5억6000만원과 2억2000만원 짜리 아파트 각 1채씩을 보유하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예금 2억3000만원, 배우자 명의의 펀드 5000만원등 총 15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장원섭 후보는 8000만원 짜리 광산구 아파트(79㎡)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채무 3500만원을 신고해 총 재산이 4500여만원에 불과했다.

진보신당 윤난실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아버지의 아파트, 주택 등을 신고하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가 7천만원에 달해 총 재산은 1억1700만원이었다.

국민참여당 정찬용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토지(담양군) 등 총 재산 2억9900만원을 신고했다.

◇**납세**=강 후보는 지난 5년간 소득세 1억6744만원과 재산세 882만원, 종합부동산세 517만원 등 총 1억8000여만원을 신고했고, 정용화 후보는 소득세 4311만원과 재산세 347만원 등 총 4600여만원을 신고했다.

장 후보는 납세실적이 23만원, 윤 후보는 소득세 115만원과 재산세 8만원 등 123만원을 신고했다. 정찬용 후보는 소득세 2억5246만원과 재산세 33만원 등 총 2억5200여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강 후보는 장기대기를 이유로 소집면제됐고, 정용화 후보는 육군 상병으로 제대했다.

장 후보(국가보안법 위반)와 정찬용(민청학련사건 긴급조치 위반)후보는 수형 면제됐다.

◇**전과**=장원섭 후보는 1988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정찬용 후보는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됐으나 올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아 전과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와 정용화 후보, 윤 후보는 전과가 없다.

**전남지사** 13일 후보등록을 마친 전남지사 후보는 한나라당의 김대식(47·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후보와 민주당의 박준영(63·현 전남지사) 후보, 민노당의 박웅두(41·강기갑 대표 비서실장) 후보 등 3명이다.

이들 중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14억4500만원을 신고한 박준영 후보였으며, 세 후보 중 박준영 후보만 병역을 필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

◇**병역·전과**=후보등록을 한 세 후보 중 박준영 후보만 병장 만기제대로 군복무를 마쳤으며, 김대식 후보와 박웅두 후보는 군목무를 면제받았다. 김대식 후보는 1982년 신체등위 갑종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이었으나 1983년 생계곤란으로 소집면제돼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

박웅두 후보는 1989년 신체검사시 2급 현역병 입영대상이었으나, 1990년 오른쪽 검지 집게손가락이 잘리는 경운기 사고로 '우인지원위지절결손' 판정을 받아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돼 군복무를 면제받았다. 전과는 세 후보 모두 없었다.

◇**재산·납세**=박준영 후보는 본인과 부인 명의의 충남·경기지역 토지(3억원)와 본인 명의의 6억1000만원 상당의 경기 안양 아파트(186.55㎡), 배우자와 셋째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 2대 등을 신고했다.

금융자산의 경우 본인 명의의 예금과 적금이 1개씩 있을 뿐 대부분 배우자와 세 자녀 명의의 보험과 예금들이었으며, 특히 배우자 명의로 8개의 보험이 가입된 점이 눈에 띄었다. 장녀는 독립생계를 한다는 이유로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 김대식 후보는 부동산과 예금, 증권, 회원권 등 총 7억9932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보다는 예금, 증권 등이 대부분이며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예금과 신탁, 보험 등으로 6억여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에는 본인 명의의 전남 영광 농지(3069㎡)와 부산 아파트(149.93㎡),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1억5000만원짜리 전세보증금과 2002년식 SM525 자동차가 있다.

박웅두 후보는 592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본인명의의 채무 7000만원 등 빌린 돈이 9천300만원 정도로 나머지는 대부분 부친 소유의 토지와 주택, 예금 등이다. 납세의 경우 박준영 후보는 6750만원을 냈으며 본인의 체납액은 없지만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장녀가 제때 납부하지 못했던 27만원이 신고됐다.

김대식 후보의 납세액은 2838만원으로 체납액은 없었으며, 박웅두 후보도 납세액은 32만원으로 체납액은 없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정당은 원내 의석 분포順

## 무소속 선관위 추첨 결정

### ■후보 기호배정 어떻게

6·2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14일 마감되면 후보들은 선거법 규정에 따라 곧바로 기호를 배정받고 20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신생정당이 늘어나면서 어느 선거보다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 현행 선거법 150조에 따르면 후보자 기호는 국회의석이 있는 정당 후보, 국회 의석이 있지 않은 정당 후보, 무소속 후보 등의 순으로 결정된다.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은 원내의석 분포 순으로, 의석이 있지 않은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 후보는 관할선거구 선관위에서 추첨해 결정하는 대로 기호 순위가 정해진다.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의 순위를 정할 때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가 우선 부여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후보가 '1번', 민주당 '2번', 자유선진당 '3번', 미래희망연대 '4번', 민주노동당 '5번', 창조한국당 '6번'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각각 배정받는다.

또 진보신당이 후보를 내면 7번(1석·총선 2.9% 득표), 무소속 심대평 국회의원의 국민중심연합이 8번(1석)의 기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어 국민참여당, 국제녹색당, 민주공화당, 사회당, 선진한국당, 자유평화당, 통일당, 평화민주당, 무소속 후보가 순차적으로 기호를 받는다. 기호 7번부터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경우 다음 당으로 기호순서가 넘어간다. 즉, 진보신당 후보가 없는 지역은 국민참여당이 7번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광주시장 후보는 1번 한나라당 정용화, 2번 민주당 강운태, 5번 민노당 장원섭, 7번 진보신당 윤난실, 8번 국민참여당 정찬용, 9번 평민당 조홍규 후보 순으로 기호를 받게 된다.

중선거구제로 실시되는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들에 대해 정당 고유 번호 이외에 해당 정당에서 정한 순서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에서 추첨해 '가', '나', '다', '라'의 한글 기호가 부여된다.

교육감, 교육의원은 정당 추천이 없어 기호 표시 없이 후보자의 성명만 위에서 아래 순으로 기재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밀고 끌고… 아름다운 동행** 13일 육군 제31보병사단 장병들이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밀고 끌며 무등산을 오르고 있다.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토끼등에 이르는 왕복 4㎞구간을 오르내린 이날 산행에는 장애인 80여명과 군장병 30명,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함께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경기지사 단일후보 유시민 확정

## 김진표 후보 눌러…민주당 초비상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6·2 지방선거 경기지사 단일 후보로 국민참여당 유시민〈사진〉 후보가 확정됐다.

양당은 13일 수원 문화의 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단일화 경선에서 유 후보가 50.48%의 득표율로 49.52%를 얻은 김진표 후보를 누르고 단일후보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유 후보는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와의 본격적인 선거레이스가 펼쳐지면서 선거 열기 또한 달아오를 전망이다.

유 후보는 민노당과 진보신당과도 추가 후보 단일화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성사될 경우 막강 야권 단일후보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하루 종일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위기였다. 수도권 1곳에서 광역단체장 후보 자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제1야당의 체면을 구겼기 때문. 당장 민주당 경기지역 후보 500여명이 광역단체장 '2번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수도권 선거 전략에 초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으로선 경기에서 국민참여당의 8000명을 크게 웃도는 30만명의 당원 수를 보유한 조직력의 절대 우위에도 불구하고 창당한 지 불과 넉달밖에 안 된, 그것도 정당 지지율 3%도 되지 않는 신생 정당에 무참히 무릎을 꿇게 된 셈이다.

이를 놓고 당내에선 지도부가 안일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